

부산일부 보건소내원 당뇨환자의 지식 및 관리실태

천광훈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1) 연구주제

도시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환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환자의 지식과 당뇨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당뇨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영양, 운동 등의 교육 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문제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지식 및 관리실태 대하여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당뇨환자의 지식수준 정도 및 당뇨관리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당뇨환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와의 지식과 당뇨 관리실태 실천 정도와 비교하여 대도시 보건소에서의 운동,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2005년 9월23일부터 2005년 10월24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보건소를 방문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지식 수준 및 관리 실태에 관하여 개발된 설문지를 통하여 최종 150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분석 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데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각 내용간의 집단 간을 비교 분석 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chi - 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도시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환자는 병원을 이용하는 당뇨환자보다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낮은 학력의 소유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60대 이상인자 75.3%가 이용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에서 72.6%가 금주를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78.7%가 금연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60대 이상의 당뇨환자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실천 실태는 40~50대는 다소 낮은 운동 실천율이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62.8%로 비교적 높은 운동 실천율을 보이나, 직장가입자의 운동 실천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 직장인의 운동실천 강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 시 정상 혈당수치에 대한 인식도는 다소 낮게 나타나 정상혈당수치에 대한 정확한 경계역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합병증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으나 간식이 당뇨환자에 좋은 것인지, 달걀 노른자위가 당뇨환자에게 좋은 식품인지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식이요법 안내 및 잦은 간식이 당뇨환자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 알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대도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환자의 지식 및 관리실태에서 지식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지식수준에서는 대졸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초졸의 경우 무학의 경우보다 낮은 가장 낮은 지식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 지식점수에서는 이혼한 경우가 지식점수가 제일 높으며, 사별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입자 구분에서는 직장가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 관리실태에서는 최초 진단 연령은 50대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뇨인지경로는 병, 의원에서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뇨 관리 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복 시 정상 혈당치 인지 수치는 126 mg/dl 이상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도시보건소를 이용하는 당뇨환자는 비교적 연령이 많으며, 낮은 학력의 소유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가입자보다 지역세대주의 낮은 지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당뇨지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건교육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관리실태에서 정상혈당치 인지 강화를 위하여 당뇨병 교육시 정상 혈당범위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당뇨환자의 식이 및 지식수준 강화와 운동실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개발이 요구된다.